



‘2030 지속가능 서울’ 제안 보고서



2019. 9. 26.

UN SDSN Youth Initiative Korea Network

## 서 문

2015년 9월 뉴욕의 UN본부에서 개최된 제70차 유엔총회 및 개발정상회의에서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2030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Leaving no one behind’라는 표어를 내걸고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보전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17가지 전 지구적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의 정의는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며, 이를 위한 UN의 17가지 목표와 169가지 세부목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역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K-SDGs를 서울시차원에서는 서울시 SDGs를 개발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SDGs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보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시의성을 가지고 동참하는 바람직한 행보이나, 정작 서울시 SDGs의 제정에는 그 주인공인 미래세대의 참여는 부족했던 실정이다.

전국 614개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와 대학교는 UNESCO ASPnet(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에 가입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을 실시하며 미래세대의 지속가능발전 인지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35개에 달하는 국제개발협력기관들은 세계시민의식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시민성을 함양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수혜하며 점진적으로 유권자로서, 소비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청년층의 수요와 욕구에 맞추어 민간영역에서도 영리기업들이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무기력한 객체가 아닌 자신들이 살고 있고 살아나갈 사회와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 거듭나고 있다. 이크발 마시(노동운동가/파키스탄), 이스마엘 베아(평화운동가/시에라리온), 말랄라 유사프자이(교육운동가/파키스탄), 그레타 툰베리(환경운동가/스웨덴) 등 불과 10대의 청년활동가들은 국제/지역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에 문제의식 가지고 시민공동체의 동참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빌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창업당시 20세), 스티브 잡스(애플/창업당시 21세), 일론 머스크(테슬라/최초 창업당시 24세), 마크 주커버그(페이스북/창업당시 20세)와 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석을 두

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창업자 역시 창업당시 20대였다.

이러한 청년들의 혁신과 의사결정과정 참여는 자발적 혹은 국제기구들과 북유럽 국가들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으로부터 기인되었다. UNESCO는 1999년부터 Youth Forum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총회에 반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당사국총회와 세계인도주의정상회담 등 UN의 많은 행사에서도 청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서울시 SDGs는 제정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SDGs의 전신으로서 2002년에 채택되었던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의 제정과정에서 지적 받아 SDGs의 제정과정에서 UN이 보완하였던 사안이기도 하다. 서울시 SDGs 역시 UN이 지정한 MGoS(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중 한 이해관계자인 청년들의 관점에서 유관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SDSN Youth는 서울시 SDGs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서울연구원의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난 7월 2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각 단체대표자 47명과 함께 ‘미래세대가 바라본 서울, 미래세대가 바라는 서울’이라는 테마로 ‘서울시 SDGs 정책 제언 청년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서울시 SDGs를 미래세대의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조명한 것으로 서울연구원 및 SDSN Korea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SDSN Youth의 구성원 및 회원단체 대표자들의 토의에 근거하였기에 모든 청년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음을 미리 밝힌다.

‘서울시 SDGs 정책 제언 청년토론회’는 제한된 시간과 재정으로 SDGs의 5대 범주 사회(People), 경제(Prosperity), 환경(Planet),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 중 청년들의 생활에 보다 밀접한 사회(People), 경제(Prosperity), 환경(Planet) 세가지 범주에 집중하여 총 세 세션으로 진행하였으며, 평화(Peace)와 협력(Partnership)은 세 세션 중 개연성의 발생에 따라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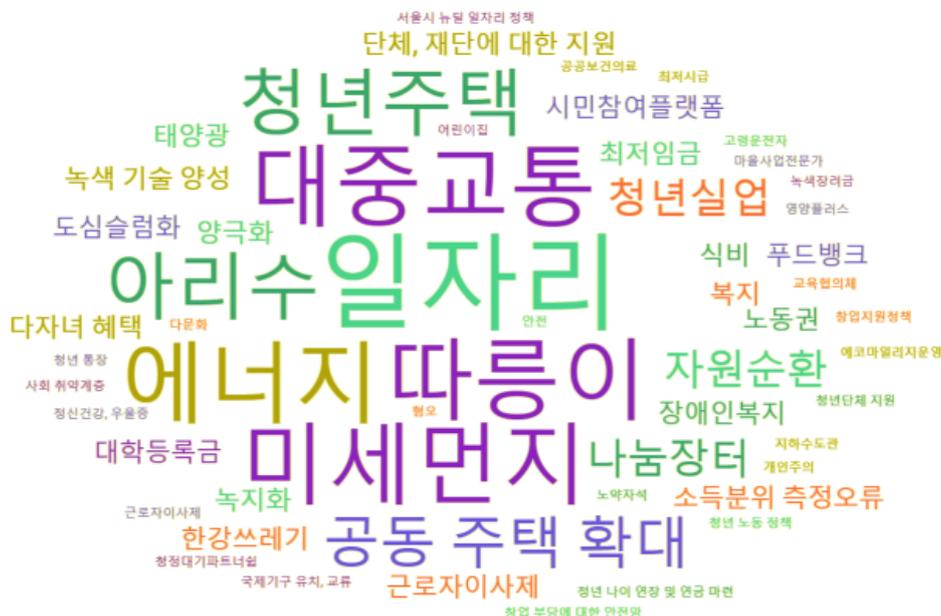
약 4시간여동안 진행된 ‘서울시 SDGs 정책 제언 청년토론회’는 크게 1) 청년들의 서울시 SDGs 정책 효과성 인식조사 2) 내가 바라는 서울의 미래상 3) 내가 바라본 서울의 주요 키워드 4) 정책제언의 네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 요약

청년들의 서울시 SDGs 정책 효과성 인식조사에서는 긍정 25.3% 부정 74.7%로 부정적 인식이 3배가량 높았으며, 각 범주별로는 사회: 긍정 35% 부정 65%, 경제: 긍정 25% 부정 75%, 환경: 긍정 16% 부정 84%으로 환경(84%) > 경제(75%) > 사회(65%) 순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내가 바라는 서울의 미래상은 4개조에서 각 범주 별 토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도출되었으며, 각 범주 별 1) 차별을 넘어 포용성 있는 사회로 2) 효율을 넘어 공정성 있는 경제로 3) 자원을 넘어 책무성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바라본 서울의 주요 키워드는 총 68가지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대화 맥락에 따라 유사 키워드를 분류하여 12가지 영역을 생성하였다. 각 범주별로는 사회: 28개 키워드 5개 영역, 경제: 17개 키워드 5개 영역, 환경: 23개 키워드 5개 영역이 도출되었고, 동일 키워드라도 영역이 다르면 개별 키워드로 간주하였으며 범주 간 영역의 중복은 허용하였다. 단일 키워드로는 생계-일자리 = 오염-아리수(4.7%) > 주거-임대주택(3.7%) > 탄소배출-대중교통 = 오염-미세먼지 = 탄소배출-에너지(3.3%) > 인권-세계시민교육 = 생계-청년실업 = 에너지-에너지(2.7%) > 탄소배출-따릉이 = 불평등-인구분산 = 불평등-인구과밀 = 인권-소수자 인식개선 = 인권-다문화 = 거버넌스-소득분위 오류 = 거버넌스-다자녀 혜택 = 공유경제-푸드뱅크 = 생계-노동권 = 주거-직주근접 = 주거-도심슬럼화(2.0%) 순서로 언급 빈도가 나타났으며, 영역별로 합산하였을 때는 거버넌스 = 인권(14.7%) > 탄소배출(13.0%) > 생계(12.3%) > 오염(12.0%) > 주거(7.7%) > 생산과 소비양식(7.0%) > 불평등(5.7%) > 공유경제(3.7%) > 건강 = 생태(3.3%) > 에너지(2.7%)의 비중이 나타났다.



<그림 1: 키워드 별 언급 빈도를 시각화 한 워드 클라우드>

## 1. 사회 범주(People)

### [차별을 넘어 포용성 있는 사회로]

각 조별 사회 범주 토의 결과 도출된 '내가 바라는 서울의 미래상'은 주로 교육과 정책 및 인식개선을 통해 소수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비-차별과 포용에 관한 부분이었다. 특히 계층화와 집단화를 지양하고 개인 고유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지향함으로써 기회의 균등과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교육적 접근을 통해 차별을 방지하고, 미디어 및 일상 언어 속 차별적 표현을 개정 및 모니터링하는 서울
계층과 연령에 관계없이 서울시 내의 지역별로 교육, 시민참여 기회, 보건의 인프라 등에서의 균등한 지원과 접근이 이루어지는 서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감과 배려를 증진하는 시설 및 교육체계가 구축된 서울
국적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책결정과정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

또한 '내가 바라본 서울의 키워드'로는 탄소배출-대중교통(10%) > 인권-세계시민교육(8%) > 인권-다문화 = 인권-소수자 인식개선 = 불평등-인구과밀 = 불평등-인구분산 = 탄소배출-따릉이(6%) 순서로 언급 빈도가 나타났으나, 영역별로 합산하였을 때는 인권(44%) > 불평등(17%) > 탄소배출(16%) > 거버넌스(13%) > 건강(10%)로 세션 논의 중 절반 가량이 인권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음이 나타났다.

범주	영역	키워드
사회 (100%)	인권(44%)	세계시민교육(8%), 소수자 인식개선(6%), 다문화(6%), 공감(3%), 소비자물가(3%), 연대(3%), 스크린도어(3%), 시민의식(2%), 유니버설디자인(2%), 노약자석(2%), 최저임금(2%), 혐오(2%), 개인주의(2%)
	불평등(17%)	인구분산(6%), 인구과밀(6%), 양극화(3%), 지역불균형(2%),
	탄소배출(16%)	대중교통(10%), 따릉이(6%)
	거버넌스(13%)	시민사회 지원(3%), 교육협의체(2%), 청년참여(2%), 마을사업전문가(2%), 커뮤니티(2%), 시민참여 플랫폼(2%)
	건강(10%)	공공보건의료 안전망(5%), 미세먼지(3%), 정신건강(2%)

이를 통해 청년들은 사회문제의 선제적 조치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소수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비-차별과 포용을 바라는데 반해, 실제 서울시의 정책들은 행정적으로 사회문제에 후속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다.

SDGs	정책 명	정책 내용
1. 빈곤퇴치	서울시민 복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비롯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 최저기준을 정하고 적정기준을 명시하여 생계급여제공, 노인&amp;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취학필수경비 단계적 무상화</li> </ul>
		<p>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목표: 2만 5천명, 선정기준: 서울 거주기간 6개월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대상-생계급여 지원)</p>
		<p>+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 지원 (상담소 운영: 행정/의료/자활자립), 시설물 안전점검, 돈의동 새뜰 마을 사업: 국비지원 취약지역 생활환경 개조 사업)</p>
	청년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긍정적이고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 실시되어야 중앙정부 복지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li> <li>2) 보육원 졸업생, 미혼모, 이주민 등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도 확대 되면 좋을 것</li> <li>3) 기존의 차상위, 경계선 인구를 위한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li> <li>4) 청소년들의 계급화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이중설계, 도색 등), 복지카드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원천 금지시키는 것도 필요</li> </ol>
2. 기아종식 & 농업	먹거리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li> <li>- 먹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농산물의 공공조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시민의 충분하고 질 높은 음식섭취를 위한 먹거리 지원활동: 음식수업, 바른 식생활 체험 교육, 서울 먹거리 포털 운영하여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취약계층/결식아동에 영양관리 서비스와 급식 서비스 제공,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 안전성 검사 강화(원산지 표시 강화, 유전자변형식품 알 권리 및 선택권 확보, 농약 등 검사 강화)</li> </ul>
	<p>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식 재료: 친환경 농산물</li> <li>- 생산지 → 광역시 → 서울시 → 공공급식 지원기관으로 (어린이집, 학교)</li> <li>-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울시가 개입하여 유통비와 안전성 검사비 그리고 차액 지원비 지원</li> </ul>
	<p>영양플러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건서비스</li> <li>- 대상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li> <li>- 영양교육 및 상담/보충식품 공급/3개월에 1회: 정기적 영양 평가</li> </ul>
	<p>청년 의견</p>	<p>1)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관공서, 학교, 병원 등)의 구내식당에서 남겨지고 버려지는 음식/식자재가 많은데, 도시락/식권으로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떨지?</p> <p>2)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청년들도 많으니 공공기관 구내식당 음식 현황 APP을 만들어서 배식시간 이후 다회용 포장용기를 챙겨오면 음식을 싸갈 수 있게 하면 어떨지?</p> <p>2-1) 음식/식자재 신선도로 인해 탈이 났을 때 공급업체에 면책해</p>

		<p>주는 조건을 달아야 할 것</p> <p>3) 음식수업, 식생활 교육 등은 공교육 ‘가정’ 교과에서 병행하면 되는 것 아닌지?</p> <p>4) 의무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외에서 비효율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옥상 또는 운동장 일부를 텃밭화 하여 그로부터 일궈낸 경작물/생산 식자재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교내 봉사활동을 만드는 것은 어떨지?</p> <p>5) 학교 인근 불량식품 퇴치뿐만 아니라 술/담배 유흥업소 등 유해 항목들에 대한 퇴치도 필요</p>
<p>3. 웰빙 &amp; 보건</p>	<p>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찾아 가는 방문상담(사회복지 인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동네주무관: 맡은 구역 담당 공무원</li> <li>- 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복지 사각지대에 방문하여 건강 체크(임산부+노인)</li> <li>- 복지상담전문관: 노인연금/장애인수당 등 상담 가능</li> <li>- 마을사업전문가: 건강한 마을 생태계 구상 (민간 전문가들이 공무원이 되어 마을 계획가 사업을 구상)</li> </ul> </li> </ul>
	<p>공공보건의료 안전망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망병원 확대: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의 특수환자와 시립 병원 연계 강화</li> <li>- 안전망병원(16년 15개소)에서의 진료비 및 검사비 확대(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내)</li> </ul>
	<p>청년 의견</p>	<p>1) 학교반경 1km 구역에서는 편의점 계산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담배 광고를, 길거리 음식점 마다 술 광고를 부착하지 못하게 규제 필요</p> <p>2) 금연 프로그램보다는 흡연부스 확충 및 보행흡연 금지, 절주 존중문화 캠페인 필요</p>

	<p>시민건강관리센터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대기 알람 서비스, 안내사인 부착, 시민친화적 환경 조성,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 공간 및 인력 통합&amp;재배치)</li> <li>-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li> <li>- 전문인력 집중교육 및 대시민 홍보</li> </ul>
	<p>자살예방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기반의 주민밀착형 사업 25개구 시행, 체계 구축 및 활용</li> <li>-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24시간, 자살 고위험군 밀착적 예방 활동 강화)</li> </ul>
	<p>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추진,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교통안전 교육, 홍보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li> </ul>
	<p>청년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음주운전/위험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li> <li>2) 운수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여건 확보 필요</li> <li>3) 오토바이 폭주운전과 안전모 착용 전담 단속 필요</li> <li>3-1) 불법개조 차량/오토바이 소음 규제 및 단속 필요</li> <li>4) 지능형 신호체계로 탄력적 신호체계 운용 필요</li> <li>5)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 증가로 보도블럭 신호등 확대 실시 필요</li> </ol>
<p>4. 양질의 교육</p>	<p>국공립 어린이집 확 충</p> <p>서울 자유시민대학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보육수요를 고려한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li> <li>- 1,000개소 확충 추진</li> </ul> <div data-bbox="614 1702 1300 196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체계 】</p> <p style="text-align: center;">본부캠퍼스 (중심 허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ext-align: center;"> <div>서북권캠퍼스 (은계 학습장)</div> <div>서남권캠퍼스 (모두의 학교)</div> <div>도심권캠퍼스 (시민청)</div> <div>동북권캠퍼스 (종량 학습장)</div> <div>동남권캠퍼스 (독실 학습장)</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5px; padding: 2px 10px;">대학연계 시민대학(25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5px; padding: 2px 10px;">기관단체 연계 시민대학(500개)</div> </div>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운영중    ■ 조성운영 예정</p> </div> <p>모두의 학교: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등 조성, 복합적인 평</p>

		<p>생학습 공간인 모두의 학교 설립</p> <p>(가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책 읽고 의견공유 등)</p>
		<p>+ 학교 화장실 개선(서양식 변기가 60%미만인 모든 초등학교에 서양식 변기 80%설치, 양치대 설치), 테마교육공원(어린이 대공원, 월드컵공원, 북서울 꿈의 숲 공원 등)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순찰을 통한 개입,지원/ 비행청소년 진로 찾아주기)</p>
	청년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치원부터 대학 및 직장까지 인권, 다양성 존중, 성평등, 환경 등의 요소를 포함한 세계시민교육 필요</li> <li>2) 정치참여, 금융관리, 분리수거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 교육 필요</li> <li>3) 소년법 폐지 및 학교폭력 가해자 엄중처벌/피해자 보호 필요</li> <li>4) 지역별 장애인구 대비 특수학교 확대 필요</li> <li>5) 투표가능 연령 만 16세로 하향 필요</li> <li>6) 고등학교 교장/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참여 의무화 필요</li> <li>7) 청소년/청년 기획 프로젝트의 제도적/경제적 지원 필요</li> <li>8) 교원 전원 대상 정기적 성인지, 문화인지, 환경인지 연수 필요</li> </ol>
5. 성평등	여성안심행복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여성폭력예방 주민활동가 양성, 폭력 인식 개선 사업</li> <li>- 환경개선 마을 조성: 낙후 지역 개선을 통해 여성안심 테마 거리 조성</li> </ul>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관리: 폭력으로부터 지역사회 아동 보호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실시
		+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사각지내 청소년 대산 성, 건강 교육 / 안심귀가스카우트앱 /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청년 의견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달성을 위한 성별 쿼터 폐지 및 남녀 동

		<p>일기준 평가 필요</p> <p>2) 기업 내 군 경력 인정 시 출산경력 인정 적용 의무화 필요</p> <p>3) 재범 및 주취 범죄 시 가중처벌 필요</p> <p>4) (유사)성매매 업소 단속 강화 필요</p> <p>4-1) 신촌 강남 등지 전단지 무수히 많으나 실질적 단속 이루어지지 않는 듯</p>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거버넌스와 지방자치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편성 과정에 다수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재원배분의 민주성 강화</li> <li>-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참여예산위원 250명을 위촉하여 제안사업 선정</li> </ul> </li> </ul>
16. 평화 & 정의 & 거버넌스	청년 의견	<p>1) 부분별한 추경보다는 복수년도 회계 도입 필요</p> <p>2) 잉여 예산을 부채 감소에 활용하는 지자체에 가점점을 줌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재정건전도 향상 필요</p> <p>3) 적자 공공기관/민간기업 임원진 성과급 지급 금지 필요</p>
	인권도시서울 추진 = (포용의 인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컨퍼런스/포럼</li> <li>- 인권위원회 설립</li> <li>- 활동: 알바청소년 노동권보호/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해소 및 대책 마련/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청년세대 위한 주거 기회 제공/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편견 해소/인권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li> </ul>
	시민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물인터넷: 분석용 데이터 수집하여 BDW(Big Data Warehouse,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용 통합 데이터 저장소) 구축 / 정책방향성에 맞는 분석과제를 적시 발굴하여 분석</li> </ul>

	청년 의견	1) 다양한 공공APP 간 호환과 통합 필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예술창작소(문화활동 공간 및 활동 지원), 공예공방 활성화 지원(공예 클러스터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 의견	<p>1) 도시재생 사업 등과 같은 참여형 사업에서 시민활동가의 처우가 좋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인건비를 고려하여 한 명의 활동가가 오래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p> <p>2) SIB(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으로 대학이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는 않을까?</p>

## 2. 경제 범주(Prosperity)

### [효율을 넘어 공정성 있는 경제로]

각 조별 경제 범주 토의 결과 도출된 '내가 바라는 서울의 미래상'은 주로 생계와 주거 등 실질적인 일상의 삶과 미래 진로에 관한 부분이었다. 특히 표면적인 현상의 면피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지향함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재참여가 가능한 경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회사/학교 등의 부조리/불합리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서울
청년 구직자와 50+ 구직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서울
소득분위에 근거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갖춰진 서울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청년단체에 대한 법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서울
청년들에게 민간영역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울

또한 '내가 바라본 서울의 키워드'로는 생계-일자리(14%) > 주거-임대주택(11%) > 생계-청년실업 = 에너지-에너지(8%) 순서로 언급 빈도가 나타났고, 영역별 합산에서도 생계(37%) > 주거(23%) > 거버넌스(21%) > 공유경제(11%) > 에너지(8%)로 생계와 주거 영역에 대한 논의가 세션의 과반을 차지했음이 나타났다.

범주	영역	키워드
경제 (100%)	생계(37%)	일자리(14%), 청년실업(8%), 노동권(6%), 최저시급(3%), 사회취약계층(3%), 국제기구 유치&교류(3%)
	주거(23%)	임대주택(11%), 직주근접(6%), 도심슬럼화(6%)
	거버넌스(21%)	소득분위 오류(6%), 다자녀 혜택(6%), 청년통장(3%), 청년노동정책(3%), 청년단체지원(3%)
	공유경제(11%)	푸드뱅크(6%), 따릉이(5%)
	에너지(8%)	에너지(8%)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혁신을 유도하고, 노력이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시스템을 희망한다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다.

SDGs	정책 명	정책 내용
7. 양질의 에너지	1가구 1태양광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빛도시, 서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 사업소, 자치구 등 공공재정 투자사업 확대</li> <li>-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 유치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 설치비 용자지원, 수익창출</li> </ul> </li> <li>- 자발적 시민참여를 위한 태양광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태양광 엑스포』 개최, 시민의 체험기회 제공</li> </ul> </li> </ul> </li> <li>•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란다, 옥상, 건물 등 시민이 설치하는 태양광에 보조금 지급: 설치비 30~50% 보조금 지급, 공동설치 인센티브나 자치구 추가보조금 추가로 지급</li> </ul> </li> </ul>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사업비 초저금리(1.45%)로 용자 지원</li> <li>•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을 에너지절감형으로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체단열, 단열창호, 고효율보일러, LED조명 등</li> </ul> </li> <li>•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sup>1</sup> 공공부문 선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북병원('15), 보라매병원 및 서남병원('16), 서울의료원('17)</li> </ul> </li> </ul>
	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민들이 에너지를 아끼고 직접 생산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양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해서 단기적으로는 원전의 추가 건설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대만처럼 원전 완전 폐쇄를 목표로 할 수 있도록 도시의 체</li> </ul> </li> </ul>

<sup>1</sup>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에너지 사용량, 설비운전 현황, 실내환경 및 탄소배출량 등)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평균 5~15%가량 에너지 절감.

	<p>원전하나 줄이기 2단계 추진</p>	<p>질 바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li> <li>- 1단계는 2012년 5월에 시작, 2014년에 목표보다 6개월 단축해서 달성</li> </ul>
	<p>청년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도권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ex. 성주)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비인도적이므로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어야 함</li> <li>2)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중립도시가 되어야 함</li> <li>3)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 지원과 용자/투자를 넘어 세제 혜택을 주는 수준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li> <li>4)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물도 에너지중립건축물로 짓게끔 강력한 규제가 필요</li> <li>4-1) 또한 이러한 규제에는 역사 유적지 및 자연을 고려한 경관, 교통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도 필수적으로 통합되어야 함</li> </ol>
<p>8. 경제성장</p>	<p>근로자이사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li> <li>• 장점: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 반영</li> <li>• 단점: 경영권 침해 우려</li> </ul>
	<p>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중물 사업<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산업생태계 기반마련과 창업/일자리 조성 위함</li> <li>- 문화예술공방 조성</li> <li>- 문화예술테마가로 조성</li> <li>-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내</li> </ul> </li> </ul>

<sup>2</sup> 마중물의 사전적 의미는 '펌프를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즉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마중물은 재생을 시작하는 지역이 낙후되고 노후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행위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

		<p>부교통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동/상계 동서간 연계 보행교량 건설</li> <li>- 마들로11길, 상계로변 가로환경개선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 구축/지원(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구성/운영)</li> <li>- 창동운동장 체육시설 이전: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아레나 도입 위함</li> <li>- 광역푸드뱅크 이전: 중심지 부적격시설</li> <li>- 차량기지 내 송전탑 지중화: 중심지 형성 및 미관 향상 목적</li> <li>- 플랫폼 창동61(봄업사업) 건립: 컨테이너 활용한 문화 조성</li> <li>- 기성상업지 활성화: 가로환경개선, 테마거리 조성 등</li> <li>- 동북권 50+ 캠퍼스 건립: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 사회 공헌, 교육포함 종합캠퍼스</li> <li>- 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 부지 도시개발사업</li> <li>- 공공문화시설 건립</li> </ul> </li> <li>• 부처협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TX연장/ GTX<sup>3</sup> 신설</li> <li>- 민간투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li> <li>→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li> <li>→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 농협 하나로클럽 현대화 및 광역중심에 적합한 시설로 복합화</li> <li>→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KTX 연장, GTX 도입시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 조성 위한 복합환승센터 도입</li> </ul> </li> </ul> </li> </ul>
--	--	--

<sup>3</sup> 수도권광역급행철도

	<p>서울형 생활임금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 체계</li> </ul>
	<p>청년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긍정적이고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 실시되어야 중앙정부 복지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li> <li>2)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li> <li>3) 여전히 만연한 무급인턴의 해결 필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1) 정부지원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실수령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 경계선 청년들에 대한 관심 필요</li> </ol> </li> <li>4) 경영 위기 시마다 국세로 지원하지만 극복 이후 사내유보금은 축적해둔 기업들에 단호한 법인세 인상필요</li> <li>5) 기업 내 최소임금 대비 최대임금 상한제(ex. 5배) 도입을 통한 보편적 임금 향상 필요</li> <li>6) 협력사 간 과도한 경쟁을 통한 협력사 노동자 처우 개악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하한선 도입 대기업에 제세혜택 부여 필요</li> </ol>
	<p>노동존중특별시 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대상별 맞춤형 직업훈련</li> <li>- 여성 사회서비스/공공 일자리</li> <li>-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 여성 창업 활성화 등</li> </ul> </li> <li>• 여성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도달시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li> </ul> </li> <li>• 서울형 뉴딜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시책 사업(원전하나줄이기, 도시재생 등)과 연계한 전문분야 공공일자리 창출</li> </ul> </li> <li>•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li> <li>• 구인/구직 매칭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박람회</li> <li>•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사민정 네트워크 및 소통채널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li> <li>- 노사민정 포럼 운영</li> <li>- 공동 캠페인 활동 전개, 근로인식 개선 홍보교육 등 추진</li> </ul> </li> <li>•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 이행점검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개발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li> </ul> </li> <li>•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심야노동 종사자 실태조사,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활용 실태조사, 금융비정규직 감정노동 연구, 취약계층 노동인권교육 및 상담, 권리구제,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li> <li>-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상시 노동상담 DB 운영, 상담사례집 발간, 노동교육 인프라 확대, 노동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li> <li>- 노동 거버넌스 구축: 노동권익센터 민관협력 운영체제 구축 및 시와 자치구간 노동협력체계 구축</li> </ul> </li> <li>•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형 7대 녹색사업 분야<sup>4</sup>에 필요한 현장형 기능인력 양성</li> </ul> </li> </ul>
	<p>청년 의견</p>	<p>1)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사회혁신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p> <p>2) 당장의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경제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여지가 크기에 민간영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p> <p>2-1) 막무가내식 지원보다는 규제완화가 시급(ex. 타다, 우버)</p>

<sup>4</sup> 신재생에너지, LED,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 IT, 도시자원순환

		<p>3) 노동자 권익 및 공익 제보자의 익명성/안정성 보장 필요</p> <p>3-1) 솜방망이 처벌은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p>
	서울창업허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내 창업센터를 총괄/조정하는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스타기업을 적극 육성/배출, 인근 대학과 연계하는 청년 창업의 거점으로서 역할 수행</li> <li>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창업에 성공하여 투자유치까지 지원받는 전주기적 창업 지원</li> </ul>
	청년 의견	1) 창업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프로젝트들을 위한 공간이나 재원 지원이 필요
	G밸리 <sup>5</sup>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적: 현 가산문화센터와 인접부지를 통합/개발하여, G밸리 내 부족한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li> </ul>
9. 산업 혁신	철도중심 대중교통계획 구축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자가용 없이 이동, 다른 지역간 이동 용이
	청년 의견	<p>1) 전철/버스 증차 및 연중무휴 버스전용차로 필요</p> <p>2) 교통 과부하 감소를 위한 출퇴근 시간 다양화 필요</p> <p>3) 대중교통 요금 무상화/교통세 부과를 통해 승용차 운용을 줄이는 방안은 어떨지?</p>
	혁신클러스터 (양재 R&CD 혁신지구, 홍릉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념: 산업, 기업 관련 기관 및 협회 등과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지식생산조직이 집적되어 있어 네트워킹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한 지역</li> <li>양재 R&amp;CD 혁신지구: 카이스트, 모두의 연구소의 관리/운영 하에,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인재양성과 기업육성, 연구촉진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가 조성한 공간,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li> <li>홍릉클러스터: 바이오 의료 창업 선도기지로 육성 계획.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입주공간, 연구개발 공용장비 지원공간, 산학연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조성되며 일부는 지역주민들을</li> </ul>

<sup>5</sup> 서울 디지털산업단지가 있는 가리봉동, 구로동, 가산동의 영문 공통 이니셜을 딴 애칭(네이버)

		위한 공간으로 활용
10.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특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로 선정된 자치구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실행</li> <li>-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 주민 체감도 증대 추구</li> <li>- 매년 말 성과 및 계획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li> </ul>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3년, '12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단 운영</li> <li>=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시범사업 추진</li> <li>○ 2단계(2년, '15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li> <li>= 자치구 전략수립, 모니터링, 공공구매.상호거래지원</li> <li>- 기초교육 및 컨설팅</li> </ul>
11. 도시 & 커뮤니티	공공임대주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 6만호 공급</li> <li>- 노숙인 주거안정지원</li> </ul>
		<p>+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한지붕 세대공감: 어르신+대학생, 사회적주택(SH공사))</p> <p>+ 맞춤형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2-3인가구)</p> <p>+ 희망의 집수리 사업(주거취약 계층/사업 주체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여 고용창출)</p>
	청년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순 물량 확보에만 시급하고 입주 비용은 비현실적</li> <li>1-2) 입주 자격에 소득분위 미 고려로 정작 주거불안정 계층은 입주불가</li> <li>2) 대학 기숙사 인허가만으로도 대학생 생활물가 하락 달성가능</li> <li>3) 역세권, 변화가는 기성세대 독점, 미래세대는 낙후/외곽지역으로 내몰림 현상</li> </ol>
	공공자전거 따릉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앱 기반의 간소화된 시스템 도입으로 구축비 최소화</li> <li>- 2020년까지 대여소간 연계 및 접근성 개선(자전거 2만대, 대</li> </ul>

		<p>여소 1,540개소 운영)</p> <p>※ 인구 1만명당 20대 규모(도보 5분내 대여소 배치)</p>
	청년 의견	<p>1) 굉장히 잘 구축 되어있어 경우에 따라 심야버스 대체 가능</p> <p>2) 자전거 전용도로 미비가 최대 난제</p> <p>3) 최근 도입되는 민간 전동킥보드 보관소 구축을 통한 상생도모 필요</p> <p>4) 그린카 확대도 필요</p>
	전통문화발굴 지원사업 추진	<p>- 보존 및 계승의 가치가 있으나 명맥 유지가 어려운 전통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원금 제공 및 성과품 전시</p>
	서울시 지정문화재 통합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p>- 문화재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관리를 위한 DB구축</p> <p>- (문화재명/입지현황/관리현황 파악 및 문화재 수리 및 보수 등의 이력 파악)</p>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대기오염 기여도: 중국 등 국외영향 49%, 국내 타 지역 36%, 서울시 자체 21%</li> <li>- 운행차 저공해화(매연저감장치 부착/폐차처리), 필터 클리닝 비용 지원</li> <li>- 친환경보일러 보급</li> <li>-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개최</li> <li>- 전기차 급속충전기</li> <li>- 악취관리체계 구축</li> </ul>
	청년 의견	<p>1) 전기차라도 결국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기는 조삼모사</p> <p>1-1) 에너지원의 신/재생에너지화가 필요</p> <p>2) 수소차 개발 및 보급 지원 필요</p> <p>3) 디젤차량/노후 내연기관 운행 금지 강제, 탄소세 부과 등 구</p>

		속력 있는 대응 필요
17. 파트너십	우수정책 해외도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국가 맞춤형 정책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외홍보 추진: 도시별 맞춤형 패키지 상품화/해외 현지 워크숍, 국제행사 참가</li> <li>- 서울의 도시발전 정책.경험의 해외도시 공유 및 사업모델 개발, 수출</li> </ul>
	지속가능공유도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지역 간 공유도시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각 시도별 우수 공유정책을 공유하고 상생 발전 도모하여 전국적으로 공유서비스 품질 강화, 국제적 공유, 시민참여 확대를 목표로 추진</li> </ul>
	청년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클러스터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필요</li> <li>2) 공연한 서울 청년들을 경상북도로 보내는 '청정경북'과 같은 사업은 시대착오적 발상</li> </ol> <p>2-1) 지방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필요</p>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어젠다의 적극적인 참여(SDG 및 도시 의제 설정) 및 정책 공유(국제기구 통해 우수 정책 공유)를 통한 리더십 발휘</li> <li>-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고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국제기구 유치</li> <li>- 시민과의 네트워킹</li> </ul>
	청년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교에서는 G20으로서 선진국 분류를, 무역에서는 개발도상국 분류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현행에서 벗어나, 기후 약당국가로서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태도 필요</li> <li>2) 탄소 예상 배출치가 아닌 과거 배출량 대비 감축목표 설정 필요</li> <li>3) 우후죽순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였으나, 인턴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학점/휴학 인정도 안됨</li> </ol>

	<p>3-1) 창업 휴학제도, 인턴십 학적제와 같이 국제기구/NGO 관련 학점인정이나 휴학인정 필요 및 급여지원 필요</p> <p>3-2) 서울글로벌센터 11층은 1년째 공실이며, 다른 기구들도 임대료 기본 지원기간이 만료되면 퇴거예정이라 함</p> <p>3-3) 유치 기구와 종사자(특히 인턴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간 지원 필요</p> <p>4) 한국,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 등 일본군 성노예 피해 국가간 연합 협의체 설치 및 진상규명, 인권옹호 활동 필요</p> <p>4-1) 나치의 유태인 학살의 경우 UN에서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매년 1월 27일)’까지 제정한 실정에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의 날(8월 15일)’이 제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음</p> <p>5) 나치의 하켄크로이츠는 금기 대상임에 불구하고 일본군의 욱일기는 똑같은 전범기임에 불구하고 해상자위대가 게양하고 있는데, 이를 국제법으로 금지시키는 소송을 위한 2차 세계대전 피해 아시아 국가 간 협의체 필요</p> <p>5-1)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이 일본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통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전범 위패 제거 필요</p> <p>6)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중국, 몽골 간 협의체 필요</p>
--	---

### 3. 환경 범주(Planet)

#### [자율을 넘어 책무성 있는 환경으로]

각 조별 환경 범주 토의 결과 도출된 ‘내가 바라는 서울의 미래상’은 주로 오염과 탄소배출, 생산과 소비 양식에 관한 부분이었다. 특히 환경에 관하여 더 이상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관 주도의 규제와 관리를 통한 의무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옥상 정원 조성,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에 동참하는 개인/회사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서울
공익 캠페인을 통한 재활용과 새활용이 활성화된 서울
청정 에너지 소비와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서울

또한 ‘내가 바라본 서울의 키워드’로는 오염-아리수(14%) > 오염-미세먼지(10%) = 탄소배출-에너지(10%) 순서로 언급 빈도가 나타났고, 영역별 합산에서도 오염(36%) > 탄소배출(23%) > 생산과 소비양식(21%) > 생태 = 거버넌스(10%)로 오염과 탄소배출 영역에 대한 논의가 세션의 과반을 차지했음이 나타났다.

범주	영역	키워드
환경 (100%)	오염(36%)	아리수(14%), 미세먼지(10%), 청정대기(3%), 물&공기(3%), 수도관(3%), 한강 쓰레기(3%)
	탄소배출(23%)	에너지(10%), 태양광(5%), 탄소발자국(3%), 기온상승(3%), 직주근접(2%)
	생산과 소비양식(21%)	재활용(5%), 친환경 소비(5%), 업사이클링(3%), 다회용품 남용(3%), 자원 순환(3%), 미니멀라이프(2%)
	생태(10%)	녹지화(5%), 생태계 계획(3%), 생물다양성(2%)
	거버넌스(10%)	나눔장터(4%), 에코마일리지(3%), 녹색 장려금(3%)

이를 통해 청년들은 환경문제의 시급성에 비해 기성세대의 대처가 안일하며, 이대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로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가속페달마저 밟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비유에 공감했다.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는 서울시의 정책들이 조금 더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더라도 동참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다.

SDGs	정책 명	정책 내용
6. 식수 & 위생	아리수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정수 처리한 깨끗한 아리수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옥내노후급수관<sup>6</sup> 교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이후 계속사업(07~15년까지 41.4% 교체)</li> <li>- 교체대상: 92년 이전 건축된 아연도강관 사용 주택</li> </ul> </li> <li>• 노후 상수도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비대상: 16년 정비대상 95km 제외한 310km 20년까지 교체 대상</li> <li>- 정비 내용: 누수 및 녹물에 취약한 비내식성관(아연도강관, 회주철관 등) 교체</li> </ul> </li> <li>• 미규제 신종물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리수 수질 안전성 확인 강화를 위해 수도물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을 사회적 관심물질(발암물질, 내분비계장 애물질 등) 선정, 관리</li> </ul> </li> </ul>
	청년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수도관 일부 교체는 결국 미교체와 같다는 인식</li> <li>2) 공공 급수대 관리가 비위생적(손을 씻는 등)</li> </ol>
	물 순환 도시 (지하수 관리, 빗물 재이용)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성: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좋은 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오염 우려로 음용률 기피현상 심화 + 빗물 이용 확대로 가뭄/도시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소시키기</li> <li>• 기대 효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기후변화 대응, 수도물 음용 문화 확산,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SOC<sup>7</sup> 조성비용 절감 등 분야별 지속가능성 제고</li> <li>• 분산식 빗물관리시설 확대를 통해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내 소재 공공기관(시설)의 물순환 개선사업 수행, 빗물정원, 투수성포장, 생태주차장 등 그린빗물인프라</li> </ul> </li> </ul>

<sup>6</sup> 오래되고 낡아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 관

<sup>7</sup> 정부 또는 공공단체 공급자가 제공하는 설비나 서비스 관련 시설류의 총칭 ex) 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산업기반시설 / 상하수도, 공원, 학교,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 치수, 해안간척 등 국토보전시설 / 국유림 보호 등 수역사업

		<p>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공동주택 등 빗물이용시설 확충으로 빗물이용 활성화</li> </ul>
	청년 의견	1)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중수도 및 절수형 변기 설치 의무화 필요
	친환경 녹색정수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존소독+입상활성탄(숯) = 고도정수처리시설</li> <li>•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li> </ul>
	한강 및 지천 수질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강 피어데크<sup>8</sup> 조성: 수상의 생태환경 보존,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수변 공간계획 수립(자연성 회복을 고려한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li> <li>•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수질개선T/F팀 회의 정례화(월2회)</li> <li>• 주기적인 공정별 수질검사 실시</li> </ul>
	청년 의견	<p>1) 수변공간에 모기와 날파리가 너무 많아 쾌적도 저하</p> <p>2) 수변공간 일회용품 남용과 투척 폐기물 관리 대책 시급</p>
12. 생산 & 소비	공유경제 국내외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효과: 국내지역 간 공유도시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 각 시도별 우수 공유정책 공유, 상생 발전 도모, 전국적 공유서비스 품질 강화 + 해외도시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해외도시별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국내 신규 공유사업 발굴 및 상생 발전 도모</li> <li>• 환경분야 focus 기대효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불필요한 자원소비 감소 기여, 정책 공유 및 관련 기술을 수출하여 개발도상국의 공해 저감,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공동 대응</li> <li>• 지방자치단체 우호교류협약 체결</li> <li>• 외국도시와 교류협력 사업추진 및 지원</li> <li>• 저소득국가 맞춤형 정책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외홍보 추진</li> <li>• 서울의 도시발전 정책/경험의 해외도시 공유 및 사업모델 개</li> </ul>

<sup>8</sup> Pier deck: 부두형 수상데크, 선착장과 공연장 레스토랑 요트계류장 등이 있는 것

		<p>발, 수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기구 유치 및 활동 지원을 통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li> <li>저소득국가 해외도시 소방인프라 구축 지원 협력(불용 소방차량 지원, 외국 소방대원 초청 교육연수)</li> </ul> <p>협력국으로 선정된 5개국(베트남, 태국, 우크라이나, 요르단, 우간다)에 지속적인 청렴건설행정 정책공유 및 지원 협력</p>
	청년 의견	1) 현재 서울에서 잘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에 막혀 확장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촉진하고 혁신 아이템을 유치할지 고민 필요
	서울새활용플라자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성위치: 성동구</li> <li>주요기능: 재사용문화 선도, 업사이클 산업육성 기반 및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부 실천</li> </ul>
	청년 의견	<p>1) 지리적으로 외진 장한평에 있으며, 인지도 낮음</p> <p>2) 권역별로 개선하거나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방안 고려 필요</p> <p>3) 자칫 에코백을 위한 에코천 사태와 같이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p>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부여</li> </ul> </li> <li>재활용정거장 구축</li> <li>생활쓰레기 처리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li> </ul> </li> <li>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확충</li> <li>나눔장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화문 나눔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0월 매주 일요일</li> <li>→ 시민/보부상 재활용장터, 자활장터, 청년희망장터,</li> </ul> </li> </ul> </li> </ul>

		<p>풍물시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섬 나눔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0월 매주 토/일요일</li> <li>→ 시민 재활용장터, 친환경 체험코너, 테마장터 등</li> </ul> </li> <li>- 자치구 녹색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1월</li> <li>→ 소규모 장터로 개인간 재활용품 판매 및 교환, 이벤트 운영 등</li> </ul> </li> </ul>
	<p>청년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주변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비인도적이므로 폐기물 중립도시가 되어야 함</li> <li>2)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쾌적한 분리수거 구역 운용이 필요</li> <li>3) 1인 가구, 외국인들을 위해 직관적인 분리수거 체계가 필요</li> <li>4) 공공차원에서 선도하는 탈-권위/탈-의전 캠페인을 통해 폐기물 관리에 앞장서야 함(컨퍼런스/포럼의 지속가능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1) 공공기관(관공서, 학교, 병원 등) 재생용지, 이면지 사용 의무화 및 생분해성 재료 사용 의무화 필요</li> <li>4-2) 민간영역에서도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등을 강력히 규제 필요</li> <li>4-3) 음료의 유리병, 종이팩 사용 / 식자재의 종이봉투 및 생분해성 포장재 사용 의무화 필요</li> <li>4-4) 정부지원으로 공병 환급금 및 폐지 매입가 상향 필요</li> <li>4-5) 자원순환 자판기, 바우처 등으로 분리수거와 재활용 적극 장려 필요</li> </ol> </li> </ol>
<p>13. 기후대응</p>	<p>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민들이 에너지를 아끼고 직접 생산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양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해서 단기적으로는 원전의 추가 건설을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대만처럼 원전 완전</li> </ul>

		<p>폐쇄를 목표로 할 수 있도록 도시의 체질 바꾸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li> <li>• 1단계는 2012년 5월에 시작, 2014년에 목표보다 6개월 단축해서 달성</li> </ul>
	청년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에너지 절약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량을 줄여야 함</li> <li>2) 블랙아웃을 감안하더라도 예비전력률 하향 필요</li> <li>3) 신/재생에너지원 비율 제고 필요</li> <li>4) 하/동절기 냉/난방 가동하며 출입구 개방하는 가게 단속 강화 필요</li> <li>5)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복지 구간까지는 무상으로 제공(태국 사례)하지만, 변곡점 이후로는 기하급수적인 에너지세 부과를 통해 에너지 절약 유도 필요</li> </ol>
	에너지드림센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드컵공원: 공원 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활용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운영</li> <li>• 다양한 에너지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ex) 자가발전기, 외부전동 블라인드, 대기전력 소모량 측정 등</li> </ul>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별 대기질정책 현황 및 우수사례 발표, 도시간 공동 대응방안 마련</li> <li>- 동북아 대기질 전문가 세미나를 통한 연구협력 강화</li> </ul> </li> </ul>
	청년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사이버 포럼/컨퍼런스 방식은 어떨지?</li> <li>2) 시청 컨퍼런스홀에 전자종이를 비치하여 매 행사때마다 자료집을 다운받아 본 뒤 반납하는 방식은 어떨지?</li> <li>3) 동북아+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유관 기관에 대한 공적자본 투자철회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지?</li> </ol>
	+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대상 자발적 참여 에너지 절</li> </ul> </li> </ul>

		<p>약 프로그램</p> <p>→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하여 인센티브 지급</p> <p>→ 전통시장상품권, 티머니충전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사업비 초저금리로 융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을 에너지절감형으로 리모델링,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공공부문선도 적용, 중소형 건축물 에너지점검 가이드라인 마련</li> <li>-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 상권이 발달하고 보행량이 많은 생활권 중심지에 보행문화의 상징적 공간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구지정 및 가로설계 시행</li> <li>- ‘걷는도시 서울’ 시민참여: 보행전용거리 확대,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 시민공모전 및 시민/전문가 심포지엄 개최</li> <li>- 모든 생활권간 자전거 도로망 연결, 단계별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li> <li>-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ex)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 개조, 조기폐차,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삼원촉매장치 설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후관리비용 지원</li> <li>- 전기차 보급 및 급속충전기 설치</li> <li>- 친환경보일러 보급: 일반보일러 대비 가격차액(약 20만원) 약 80%수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수취약지역 해소: 침수원인 심층분석으로 지역맞춤형 배수개선대책 체계적 추진(하수관 정비, 빗물펌프장 설치, 저류조 설치, 침투형 빗물받이 등)</li> <li>- 수해방지시설 조성사업</li> <li>-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li> <li>-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가</li> </ul> </li> </ul>
--	--	---

		<p>속화, 예방 및 대응 복구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소비/생산의 효율을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설치비의 30~50% 보조금 지급, 추가 인센티브 지급)</li> <li>LED 조명 보급 확대</li> <li>서울형 7대 녹색사업<sup>9</sup> 분야에 필요한 현장형 기능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li> <li>에너지자립마을 조성</li> </ul> </li> </ul>
14. 해양자원	조류경보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류발생시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 공급 및 피해 최소화 목적</li> <li>수질분석결과, 경보발령 및 해제상황, 조류발생동태, 피해경감대책 추진상황, 조치계획 및 결과 등 환경부에 보고</li> </ul>
	한강 생태계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1/2차 한강 종합개발사업 및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강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 초래</li> <li>한강 생태거점 조성: 지천합류부 등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생태거점으로 우선 조성하고 수변에 천변습지를 조성하여 생물서식공간 확보</li> </ul>
	청년 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낚시 금지구역 및 수변 폐기물 투기 엄중 관리 필요</li> <li>2) 미세플라스틱 및 오폐수 방류 단속 필요</li> </ol>
	한강 숲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의도공원 면적의 5배 확보: 자연성 회복, 다양한 경관연출, 도시민에게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li> <li>생육이 불량한 수종을 배제하고 한강에 적합한 수종 선택</li> <li>시비, 유공관<sup>10</sup> 등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li> <li>관수 등 유지관리가 편이하게 설계 고려</li> </ul>
15. 육상 생태계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li> <li>서울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장기대책 마련 및 생물다양성 증진 중점추진과제, 액션플랜 실행</li> </ul>

<sup>9</sup> 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 IT, 도시자원순환

<sup>10</sup>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li> <li>• 단절된 녹지축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녹지연결로 조성 ex) 서울둘레길</li> </ul> </li> </ul>
	<p>청년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심 내 유희지 및 공유지 녹지화 의무제를 통한 인구당 녹지면적 확대 필요</li> <li>2) 도시농업, 도시양봉 사업 확장을 통한 도시생태계 복원 필요</li> <li>3) 반려동물 등록제의 강화 필요</li> <li>4) 유기동물의 생존권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li> </ol>

## 맺음

청년들은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가정에서는 부모/가장에게, 직장/학교에서는 상사/교수에게, 주거에서는 임대인에게 종속된 객체로서 자기결정권을 오롯이 행사하기 어려운 위치이다. 하지만 주체적인 삶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끊임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응당 우리 서울은 이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도시여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에 비해 소수자이자 비주류로서 이 사회 모든 취약계층들의 애환에 공감하고 그들과 스스로를 대변하기 위해 맞서지만, 종래에는 미래세대 또한 기성세대로 변모할 수밖에 없기에 세대 간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식은 이해(利害)가 아닌 이해(理解)이며 서로를 연민이 아닌 연대의 대상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다.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의식과 민주정신으로 부디 수도 서울이 차별을 넘어 포용성 있는 사회로, 효율을 넘어 공정성 있는 경제로, 자율을 넘어 책무성 있는 환경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한다.

## UN SDSN Youth Initiative Korea Network는?

UN SDSN Youth Initiative는 전 세계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수립하고 SDGs와 파리기후협약의 이행과 실용적인 해법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UN사무총장이 창립한 자문기구인 SDSN 산하 청년단체로, 전 세계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해법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발족되었다. SDSN Youth는 1) SDGs를 청년들에게 교육하고 그 달성을 위해 네트워크로 영입하는 것 2) 전 세계의 청년들을 연결하여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SDG 달성을 위해 협력시키는 것 3) SDGs를 위한 혁신적인 해법을 창안하고 확장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orea Network에서는 현재 AIESEC Korea(국제리더십학생단체 한국중앙위원회), MSSF Fellows(문속과학지원재단 장학생회), SDP YGL(청년글로벌리더 지속가능발전프로그램), GEYK(기후변화청년단체), UNAI ASPIRE Korea(유엔아카데미임팩트 어스파이어 한국사무국), UN Chronicle Korea(유엔크로니클 코리아), UNSA ROK(유엔학생협회 한국협회), UNYP KGU(경기대학교 유엔청년연합회) 등 8개 회원단체들과 전국 32개 대학 47개 동아리 1,000여명의 청년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AYPN(아시아청년평화네트워크), MLRN YSC(중위도지역네트워크 청년학자위원회), 수도권청년문화네트워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30 지속가능 서울’ 제안 보고서에 실린 통계자료의 권한은 UN SDSN Youth Initiative Korea Network에 있으며 허락없이 복제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 2019년 9월 26일

발행인 | 강동렬

발행처 | UN SDSN Youth Initiative Korea Network

편집인 | 신소렬, 이성주, 장재현

E-mail | [korea@sdsnyouth.org](mailto:korea@sdsnyouth.org)

TEL | 010-9913-3984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R&D센터 오정에코리질리언스연구원